

## 경복궁 중건 시 창의궁 함일재의 흥복전 이면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Relocation of Heungbok-jeon formerly known as the Hamil-jae of Changui-gung Palace in the Reconstruction of Gyeongbok-gung Palace

홍 석 주

Hong, Soek-Joo

(서울대학교 건축과 교수, 공학박사)

김 버 들\*

Kim, Bue-Dyel

(서울시립대학교 박물관 학예연구사, 공학박사)

## Abstract

This study explains details on Heungbokjeon during the reconstruction of Gyeongbokgung Palace in the 19th century for the first time in 273 years. Hence, the construction of a palace with more than 7,000 Kan(間) made possible in a short stretch of time. Given the fact that its existing architecture was recycled. The antecedent of Heungbokjeon(興福殿) was the Hamiljae(咸一齋) of Changuiggung(彰義宮) which served as the residence of King Yeongjo before he was enthroned. On the other hand, the Changuigung was the outset of Inpyeongwi-gung(寅平尉宮), which was built for the princesses. During the reign of King Hyojong the princess who got married must depart from the Inpyeongwi-gung. This study corroborated the undertaking of modification of its architecture from being asymmetrical house to symmetrical most primarily the inner part of the palace through the innovation of Changui-gung and the restoration of Hamijae to Heungbokjeon. Hence, it was confirmed that the Heungbokjeon was the only inner part of the palace that was not burned down by the 2 consecutive fires during the reign of King Gojong, to be more specific these fire happend on his 10th and 13th year of rule. Consequently, the research process of Gyeongbokgung Heungbokjeon can escalate the possibility of considering not only the reconstruction of Gyeongbokgung in the 19th century, as well as the construction of the capital city in the 17th century.

주제어 : 경복궁 중건, 창의궁, 함일재, 흥복전

Keywords : Reconstruction of Gyeongbok-gung Palace, Hamil-jae, Changui-gung, Heungbok-jeon

## 1. 서 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임진왜란 이후 정벌이 된 창덕궁·창경궁·경희궁은 큰 변화 없이 소실과 재건을 반복하였다. 그러나 19세기 경복궁 중건은 273년간 비어있던 터에 새로 지은 것이다. 경복궁 중건보다 70여 년 앞서 건축한 18세기 수원화성은 600여 칸의 행궁을 포함하여 순수 공사만 2년 8개월이 걸렸다. 그런데 19세기 경복궁 재건은 총 7,225칸 규모로 약 천일 만에 이루어졌다. 그중 절반

이상은 터에 쌓인 토사를 치우고 목재, 석재 등 각종 재료를 찾아 운반하고 장인을 찾고 주변 민가를 보상하는 데에 소요되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많은 공역을 단시간에 이룰 수 있었을까? 그것은 기존 건축 재료를 재활용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경희궁에 있는 상당수의 전각을 헐어 경복궁 공사에 사용하였고 도성 내외의 주요 건축, 제택, 궐외 관청건물들을 해체하여 재활용하였다.

그 중에서 창의궁 함일재를 옮겨 지은 경복궁 흥복전을 주목할 만하다.<sup>1)</sup> 흥복전은 고종 5년 경복궁 중건이 완료된 이후, 고종 10년과 고종 13년 화재로 소실과

\* Corresponding Author : namu5050@naver.com

본 논문은 서울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1) 『영건일기』, 1866년(고종 3), 3월 24일

재건을 반복했던 다른 내전 건축들과 달리 유일하게 처음 이진 된 모습을 유지한 내전 건축이다. 창의궁은 효종의 딸 숙휘공주와 정제현의 궁가였던 인평위궁이 전신이다.<sup>2)</sup> 따라서 영건일기에 명시된 창의궁 함일재를 이진한 흥복전은 19세기 경복궁 중건의 모습과 더 나아가 숙종과 영조연간의 건축 이력을 탐구할 수 있는 건축물이다.

1-2. 연구방법

창의궁 함일재를 이진한 흥복전은 1917년 창덕궁을 복구하기 위해 해체될 때까지 1867년 경복궁 중건 당시의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여 경복궁에서는 한때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내전 건축이었다. 따라서 흥복전은 이진해 온 창의궁 함일재의 역사를 더하여 대단히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건축물이다. 본 연구는 창의궁 함일재를 경복궁 흥복전으로 이진한 것에 초점을 맞추어 문헌과 도면들을 분석하여 이진에 의한 결과로 생긴 흥복전의 특성을 조명하고자 한다.

최근 서울역사편찬원이 주도한 일본 와세다 대학 소장 『영건일기』 번역으로 19세기 이후 경복궁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sup>3)</sup> 『영건일기』는 고종 대의 경복궁 중건 당시의 공사 현장을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이다. 여기에 실록과 승정원일기 및 각종문집을 분석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과 창의궁의 구성을 살필 것이다. 『경복궁배치도』와 『북궐도형』은 중건 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의 기록이긴 하지만 배치도와 평면도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가시적으로 공간 구성과 평면 형태를 알 수 있다. 따라서 창의궁 함일재와 경복궁 흥복전의 평면을 비교하여 변화된 공간구조를 파악할 것이다. 또한 고종연간의 『궁궐지』에서는 건물을 이루는 부채의 크기를 상세히 알 수 있으며, 2019년에는 단청을 제외한 복원공사를 마치고 흥복전 주변은 발굴까지 이루어진 상태라 문헌기록과 현장을 함께 확인할 수 있다.<sup>4)</sup>

2. 창의궁 함일재

2) 인평위궁이 창의궁이 되기까지는 황정연, 「조선 후기 궁가의 미술과 도시인문학적 의미」, 미술자료 91호, 2017 참고  
 3) 서울역사편찬원은 건축, 민속, 역사, 국문학 등의 연구자들이 모여, 번역된 경복궁 영건일기를 바탕으로 『경복궁 중건, 천일의 기록』을 출간하였다.  
 4) 흥복전 철거 이후 터에 연지를 조성하였기 때문에 흥복전의 행각은 기초까지 유실된 부분이 많다.(국립문화재연구소, 『경복궁건축유적자료집 흥복전』, 2014)

2-1. 창의궁의 변화 과정

(1) 창의궁의 전신 인평위궁

본래 창의궁은 효종의 딸인 숙휘 공주(淑徽公主)와 인평위(寅平尉) 정제현(鄭齊賢)에게 내린 궁방(宮房)이다. 『공사건문록』<sup>5)</sup>에는 당시 공사 상황과 세평을 전하고 있다.

인조와 효종연간 새로 지은 제택<sup>6)</sup>으로는 용홍궁, 어의궁, 청평위궁 인평위궁, 동평위궁, 흥평위궁이 있다. 이 중 용홍궁과 어의궁은 「안평대군방전도」<sup>7)</sup>를 통해 대략을 알 수 있으며, 청평위궁과 인평위궁은 집의 규모와 배치를 알 수 있는 간가도가 전한다. 다른 제택은 상량문을 통해 공간 구성을 유추할 수 있다.<sup>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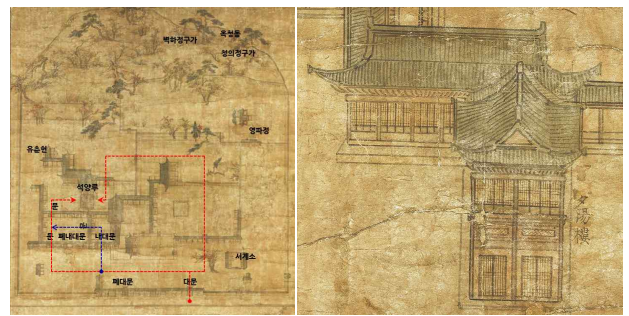


그림 1. 인평대군 방전도 중 인평대군가(좌)와 침루인 석양루 상세(규장각 소장본 재편집)

그 중 용홍궁은 “위와 아래 건물의 규모가 정도(正道)에 맞게 모두 건립되고 계절 따라 기후를 조절하여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게 배려하였다. 아무리 크고 화려한 건축물이라도 살기에 편케 함이 무엇보다 중요한 법, 갖가지 장식을 애써 피한 것은 가능한 한 비용을 절약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였다. 다른 궁가들과 달리, 정해진 규정에 맞추어 건축하였고, 계절에 따라 각기 다른 공간을 사용하도록 계획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용홍궁 서쪽에 지은 인평대군 제택도 “비새고 바람불 염려만 없게 했다”<sup>9)</sup>는 상량문의 내용으로 볼 때, 무리하지 않고 지었던 것으로 보인다.

인평대군방전도에는 두 대군의 궁집이 붙어 있지만,

5) 공사건문록은 효종의 딸 숙정공주의 남편인 동평위 정제현의 수필집이다. 혼인이후에도 궐내에 살았기 때문에 임진왜란 이전부터 궁에 전해지는 일과 본인이 경험한 일까지 기록하였다.  
 6) ‘궁가’, ‘본궁’, ‘궁집’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므로 본 연구에서는 실록에 나온 대로 ‘제택’이라고 하겠다.  
 7) 『인평대군방전도』는 1792년 정조의 명으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정조 16년 입자(1792) 9월 23일(기미)  
 8) 『동주집』제5권 상량문(上樑文)에는 청평, 인평, 동평, 흥평위 궁가를 신축하면서 지은 상량문이 수록되어 있다. 이 상량문을 통해 공주들의 제택 위치가 궁궐에서 매우 가깝고 국고가 아닌, 왕실의 돈으로 공사 경비를 부담하였음을 알 수 있다.  
 9) 『계곡선생집』제3권 / 잡저(雜著)/ 상량문

본래는 떨어져 있었다.<sup>10)</sup>

효종과 현종연간에 공주를 위해 지은 제택들은 인경궁 내와 인경궁 주변을 둘러싸고 계획되었다. 가장 먼저 지어진 청평위궁은 인경궁 터 내에 지어졌고 이후 계속해서 인경궁 터 내에 공주들의 제택 건축 계획이 서자 대신들의 반대로 인경궁 밖에 세워지게 된다.

표 1. 인조~현종연간 도성 내에 신축된 제택 사례

궁가 명	시기	건축주 및 용도	비고
어의궁 (용흥궁, 하어의궁)	1631년 (인조 9)	효종(잠저), 80칸 규모 왕실 가례소	인평대군 방진도
인평대군가	1641년 (인조 19)	인평대군 장생전	인평대군 방진도
청평위궁	1653년 (효종 4)	숙명공주와 심익현 인경궁 터에 지음	청평위궁 배치도
동평위궁	1661년 (현종 2)	숙정공주와 정계륜 인달방, 인경궁 밖 장흥 고 옆에 지음	
인평위궁 (송현방사저)	1664년 (현종 5)	숙휘공주와 정계현 군사 500여명 조발 사진단 근접 인경궁 밖, 현 통의동	훗날 창의궁
흥평위궁	1670년 (현종 11)	숙경공주와 원몽린 어염집 사이에 위치 30여호 이상의 민가와 왕가의 사우도 철거	

효종은 출가한 딸들을 한동안 내보내지 않고 궁 안에 집을 지어 살도록 하였다. 동평위 정계륜은 “임금의 은혜를 받아 어린 시절 궁궐에서 생활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이때에 효종이 딸과 사위를 위해 지은 건축을 동궐도에서 찾을 수 있다. 요화당 일대의 취요현(翠耀軒), 난향각(蘭香閣), 계월합(桂月閣)은 각각 숙안공주(淑安公主), 숙명공주(淑明公主), 숙휘공주(淑徽公主), 숙정공주(淑靜公主)의 네 공주와 그들의 남편인 익평위(益平尉), 청평위(靑平尉), 인평위(寅平尉), 동평위(東平尉) 등이 살던 곳이다.



그림 2. 효종의 공주들이 살았던 전각(『동궐도』, 동아대학교 박물관 소장)

1659년 효종이 승하하자 숙휘, 숙정공주는 궁 밖에

나가 살게 된다. 동평위궁과 인평위궁은 효종 사후 현종이 여동생들을 위해 지어준 제택이다.

그 중에서도 인평위 궁방은 나라에서 정한 규모를 한참 벗어나 문제가 되었다. 당시 공사 상황을 『공사견문록』과 『현종실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숙휘공주 궁방은 건축당시, 교하(交河; 파주)에서 남의 땅을 점유하는 것은 물론 사대부의 분묘가 있는 산에서 목재를 벌목하는 등 문제가 많았다.<sup>11)</sup> 숙휘공주의 시아버지인 정유성의 신도비에 의하면, 대대로 청렴했던 가문이 왕실과 연결된 이후 받게 된 지나친 관심이 부담되고 공주의 제택이 지나치게 커지니 장차 화를 입을까 두렵다며 규모를 줄여달라고 요청하였다.<sup>12)</sup> 이에 70여 칸을 줄여 건설하게 된다.<sup>13)</sup>

(2) 인평위궁에서 창의궁으로

숙종은 동생인 명안공주를 지극히 아꼈다. 명안공주는 해창위(海昌尉) 오태주와 결혼하였는데, 당시 계획된 제택의 기지가 무려 1,826칸 이었다.<sup>14)</sup> 이에 경기관찰사, 사헌부, 대사헌, 송시열, 허적 등이 대신과 감찰부서에서 여러 번 상소를 올려서 줄이도록 하였다.

본래 조선 초기 나라에서 정한 궁가의 규모는 대군은 60칸, 공주는 50칸이었다. 성종연간의 가사제한내용을 보면, 전체 칸 수 뿐만 아니라, 제택의 공간을 정방, 익랑, 서청, 침루, 별실 및 기타 건축으로 나누어 각각의 기둥높이, 주간의 크기, 누주의 크기까지 규정하였다. 실제로 태조가 일흔이 넘어 본 숙신옹주 머치를 위해 지어준 집은 20여 칸에 불과하였다.<sup>15)</sup>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규제는 지켜지지 않았고<sup>16)</sup> 효종과 현종은 공주의 제택기지를 1,600칸으로 규정하기에 이르렀다.<sup>17)</sup>

명안공주의 제택공사가 계속 문제가 되자 숙종은 청평위궁을 궁가의 체도로 하겠다고 공표하였고<sup>18)</sup> 이후부터는 궁가 영건도 해조(該曹)에서 감독하고 엄히 신

11) 『현종실록』 즉위년(1659) 10월 14일辛丑 2번째 기사  
 12) 『송자대전』제158권「신도비명」, 우의정 정공(鄭公) 및 현종실록 현종 5년 11월 19일  
 13) 『현종실록』현종 5년 11월 19일 병오 3번째기사  
 14) 『숙종실록』, 숙종6년 7월 1일 첫 번째 기사  
 15) 『태종이성계별급문서』(보물,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에는 태조가 머치를 숙신옹주로 봉하고 향방동의 땅과 24칸의 집을 분급하는 내용을 기록한 분재기이다.  
 16) 주택 체도를 정리한 성종도 계성군의 집을 지을 때 규제를 지키지 않았다.  
 17) 『숙종실록』, 숙종6년 7월 1일 첫 번째 기사  
 18) 『숙종실록』, 숙종 6년 8월 8일 갑자 두 번째 기사

10) 윤겸은 조강 중에 “봉림대군과 인평대군의 두 궁이 인평대군의 궁으로 편입되어 본래의 모습과 다르니, 앞으로 잘 살펴야 한다고 건의하는 내용이 있다. (『인조실록』 13년 을해(1635) 4월 3일)

칙할 것을 명하였다.<sup>1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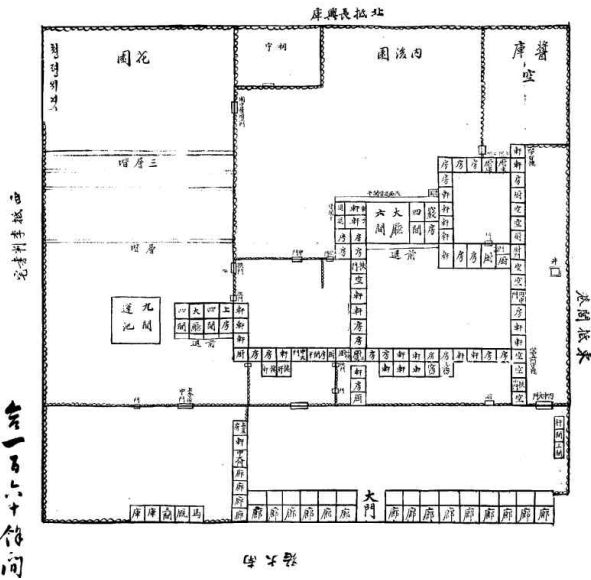


그림 3. 창평위궁 평면도(장서각 소장)

숙종은 지나치게 넓은 궁가의 예로 인평위궁과 이현궁을 꼽았다.<sup>20)</sup> 인평위의 궁가는 현종에 이어 숙종대까지 지나치게 큰 규모로 인해 구설에 올랐던 것이다.

인평위궁은 규모가 너무 커서 자손들이 관리를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숙종은 자비로 인평위궁을 매입한 후, 훗날 영조가 되는 영인군의 처소로 주었다.

조선시대 왕자와 공주가 궁 밖으로 나가 살기 위해 지은 집을 방(房)이라 하고, 방의 주인이 국왕이 되면, 방은 본궁으로 불리며, 국가로 귀속되었다.<sup>21)</sup> 영인군이 왕세제가 되면서 인평위 제택은 동궁소속 궁가가 되어 '창의궁'이 된다. 이로써 인평위궁은 1733년(숙종 33)에 길례를 올린 영인군의 제택으로 총 300칸 반 규모의 창의궁이 되었다. 현재 장서각이 소장하고 있는 「창의궁배치도」는 숙종 33년 당시 모습이 반영된 것이다.

(3) 영조의 창의궁 사용과 이후 변화

영조는 왕위에 오른 뒤에도 창의궁에 자주 행차하였다. 선위과동과 같이 정치적인 결정을 앞두고 칩거가 필요한 경우, 몸이 아파서 쉬고 싶을 때도 창의궁을 찾았다. 육상궁을 배알하고 환궁하다가 사전에 논의 없이 갑자기 어가를 창의궁으로 돌리거나 주강을 창의궁에서 하기도 하였다. 영조는 한밤중에도 갑작스럽게 창의궁 행차를 자주 하였다. 대신들은 어가의 이동은 절차상 불편하며, '오래된 궁'인데다 사묘(祠廟)가 있기 때

문에 해롭다며 말리기도 하였다. 이는 당시 창의궁이 100년 가까이 된 오래된 건축으로 인식되었음을 뜻한다.

영조는 공적으로도 창의궁에 행차하였다. 정순왕후의 가례청도 창의궁에 있었다. 일찍 죽은 왕실 구성원의 사묘도 창의궁 후원에 세워지면서 제사묘의 성격도 갖추게 되었다. 그 중 경모궁 의례의 경우, 의례에 동원된 관료들만 98명 이상이였다. 그만큼 창의궁의 규모가 왕이 행례를 하고, 아무 때나 찾아 침수들 정도로 시설과 경비가 갖추어졌음을 뜻한다.

영조는 창의궁이 오래된 궁임에도 불구하고 부왕이 직접 구입해 준 것이기 때문에 창의궁의 주요 전각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다. 영조는 "양성현의 포진(鋪陳)과 석자(席子)는 모두 옛날 것 그대로이다."<sup>22)</sup>고 할 정도로 옛 모습을 보존하였다.

정조는 창의궁 관리와 보수를 제도화하였다. 비가 새는 경우를 제외하고 봉심(奉審)하였을 때, 문제가 있으면 관리자를 처벌하도록 하였고, 봉심 결과 문제가 있으면 그 즉시 보수하도록 인력과 재화를 제도적으로 갖추었다.<sup>23)</sup>

왕실 제택은 왕자나 공주가 살아서 잘 꾸려나가는 경우는 상관 없지만 절손이 되는 경우 왕실에 귀속되어 가례와 같은 왕실행사를 위한 별궁 혹은 제사궁으로 전환된다. 어의궁은 조선후기 대표적인 가례청 별궁이었고 창의궁도 1872년 철종의 딸 영혜옹주의 부마 초간택 시에 처소로 사용되었다.

고종연간에도 육상궁을 배알하고 돌아오는 길에 어가가 창의궁에 들러 환궁한 기록이 있다. 그러나 경복궁을 중건하면서 창의궁 함일제가 해체되어 흥복전 건립에 사용되면서 급격한 변화를 맞는다. 함일제를 해체하여 넓어진 마당에 예막을 설치하고 자재를 쌓아두거나 조립을 기다리는 창호를 보관하였다. 당연히 왕실의 어가가 창의궁을 찾는 횟수는 점차 줄었다.<sup>24)</sup>

2-2. 창의궁의 공간 구성

(1) 규모와 구성

왕자와 공주의 제택은 왕실에 국상이나 혼례가 있으

19) 『숙종실록』, 숙종 28년(1702) 8월 10일 첫 번째 기사  
 20) 서울역사편찬원, 『국역 부재일기』, 숙종 37년(1711) 6월 24일  
 21) 이종서, 「조선시대 남별궁 평면 구조와 변화」, 건축역사연구 29권 1호, 2020.2

22) 『영조실록』영조 34년(1758) 11월 7일  
 23) 『만기요람』「재용편 4」, 호조 별례방, 대소영전 및 「근정편 2」용호영 각저적간  
 24) 순조대 이후 문헌은 창의궁에 동가한 일을 창의궁이 아니라 장보각 혹은 창의궁 장보각이라고 기록한다. 현종연간 창의궁 장보각에 동가한 일은 이윤선의 『공사기고』에 기록되어 있다.(서울역사편찬원, 『국역 공사기고 1』, 현종12년, 9월 6일, 2017)

면 궁궐의 대내(大內)와 함께 진향을 준비하는 곳이 된다. 넓은 가대의 마당에는 각종 가가(假家)를 설치하였다. 혼례를 위한 가례청이 될 때는 일반 살림집과 궁궐 사이의 위계를 지니며, 50여 일 이상 별궁의 역할을 한다. 게다가 혼례를 위한 풍부한 음식과 물품 등으로 별도의 반딧간과 각종 창고 시설이 필요하다.

특별한 궁중행사가 아니더라도, 왕자와 공주의 제택에서는 음식에 들어가는 각종 장까지 궁에서 따로 보냈다.<sup>25)</sup>

왕실의 공주가 출하할 때에는 궁궐에서 거느리던 일부 궁인들도 함께 나갔다. 공주는 제택에서도 여전히 궁녀들의 부역을 받는 등 시종드는 이들이 가깝게 있어야 했다. 또한 왕실과 사대부의 예법에 따라 많은 손님과 행사를 치러야 했기에 객청과 넓은 마당은 손님을 맞이하고 의식을 행할 수 있는 공간과 그만큼 일할 인력이 거주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영조대 창의궁은 영조가 아무 때고 침식 할 수 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부속시설이 필요하였다.<sup>26)</sup>

창의궁 각각의 영역은 담, 문 행각으로 구분된다. 반대로 영역 내의 공간들은 행각, 문, 루를 통해 대부분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형태는 거의 같은 시기 지어진 청평위궁과 일치하며, 현존 사례로는 운현궁 노략당·노안당·이로당과 창경궁 영춘헌·집복헌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sup>27)</sup>

창의궁 대문을 들어서면 좌우로 행각이 있는데, 행각과 정문이 모두 기와를 얹은 담장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각 채는 미음자 형태로 폐쇄적인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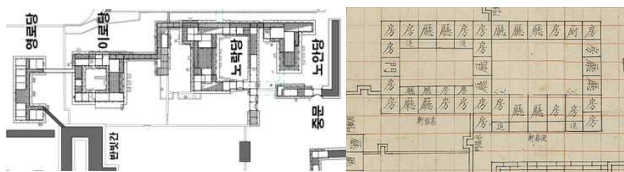


그림 4. 운현궁(송명희 논문) 및 창경궁 영춘헌·집복헌(『동궐도형』, 규장각 소장)

창의궁의 영역구분과 구성은 정조연간에 있었던 중심의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sup>28)</sup> 크게

25) 김용숙, 『조선조 궁중풍속 연구』, 일지사  
 26) 윤정, 「18세기 경복궁 구지의 행사와 의례」, 서울학연구 25권, 2005 참고  
 27) 창의궁을 구성하는 전각들의 당호는 一부터 九까지 수를 나타내는 명칭이 들어가 있다. 음을 맞춘 것일 수도 있고 순서를 나타낸 것일 수도 있는데, 당호의 재미있는 사례라고 생각한다.  
 28) 『승정원일기』, 정조 13년 기유(1789) 4월 1일 / 정조 15년 신해

는 사대부가의 살림집의 안채에 해당하는 함일재와 사랑채에 해당하는 양성헌 그리고 왕실 제사를 위한 부속채로 나눌 수 있다.

표 2. 창의궁의 공간 구성(호장묘와 의소묘는 제외)

영역	당호	사용 및 보수 사례
안채 (함일재)	함일재 (咸一齋)	-정침, 정방에 해당 -신주 제작 하거나 다례를 행하는 장소 -육간대청, 4간침방과 대청과 장자로 연결된 헌, 헌 앞은 방으로 추정, 정면과 후면에 퇴를 둠.
	사미당 (四美堂)	
	육덕재 (六德齋)	
	구사재 (玖思齋)	-외행각(제관방)을 거느림 -창호와 외행각 보수
(부속채)	제기고, 내관입처, 수복방	
	칠상루 (七相樓)	-누다락 행랑으로 반딧간과 연결(추정) -겹치마, 보수기록 있음
	팔상합 (八祥檻)	-누수보수 기록 -뒤편에 중문이 있음
	삼오헌 (三吾軒)	
사랑채 (양성헌)	영모당 (永慕堂)	-영조가 선친을 그리워 함
	대청헌 (臺淸軒)	-영조 세세 시절 대학을 배우던 곳 -누수 보수
	일한재 (日閑齋)	-가물 시 짚을 내림 -신료들 가자 행사, 신료 인건 -일식 구례 장소 등 객청 용도 -박공, 모기연 보수
	이유헌 (二酉軒)	-향민 소견 및 신료 인건
	이심재	- 신료 인건
	이안와	- 신료 인건
부속채	장보각 (藏譜閣)	-선왕의 영정 진영 보관 국왕 행차시 배알장소 -작헌례 장소 -장식 기와(치미), 차양 및 노림 설치 및 보수 -판문형식의 동염문이 있고 서편에 중문 있음
	소주방, 내전사청, 외전사청, 수관내관방(남행각으로 추정), 향대청, 루상고, 행각, 대문, 하마장소	

영조는 양성헌과 장보각에서 신료들뿐만 아니라, 일반백성들도 만났다. 신료들과는 편전에서처럼 임의롭게 사용하였으며, 일한재, 이안와 및 장보각은 앞에 넓은 마당이 있어 작헌례와 일식 구례행사를 행하기도 하였다. 깊숙한 곳에 위치한 이유헌에서는 창의궁 인근에 사는 향민들을 모아 의견을 청취하기도 하였다.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청평위궁과 비교하면 건물구성과 배치형태는 매우 흡사하지만 창의궁은 제사와 관계된 시설이 많다. 제사시설이 많은 것은 영조연간 이후 의소묘와 호장묘 등이 세워졌기 때문이다. 사묘가

(1791) 3월 17일/ 정조 21년 정사(1797) 9월 14일/ 정조 24년 경신(1800) 3월 30일

세워지기 전에는 화계와 후원으로 뒷마당을 더 넓게 활용하였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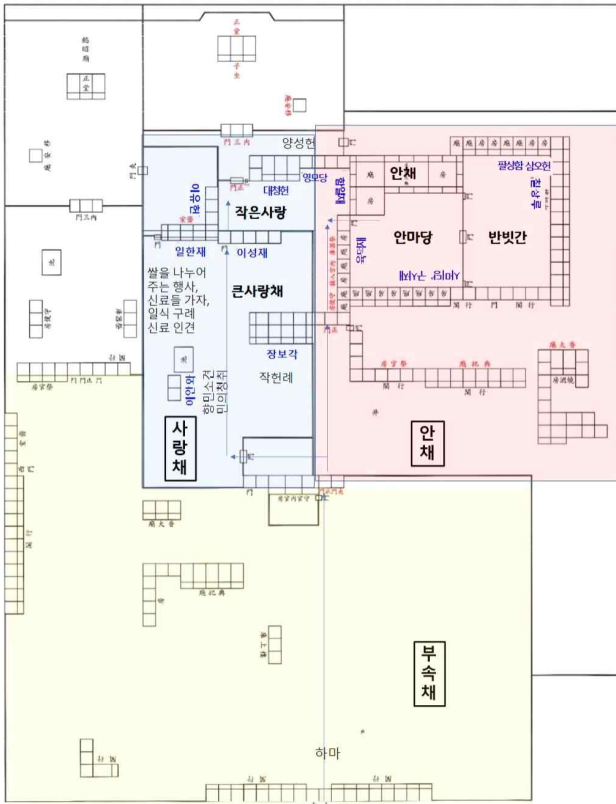


그림 5. 창의궁 공간구성(고려대박물관소장, 서울학연구소 편집본 위에 재작성)

(2) 함일재

제택에서 중심이 되는 공간은 정침과 내루이다. 살림집의 안채에 해당하는 함일재는 정침 혹은 정당에 해당한다.<sup>29)</sup> 안채에 해당하는 정침은 ‘승당입실(升堂入室)’의 구성으로 육간대청 혹은 지밀대청인 ‘당’을 중심으로 한쪽은 네 칸 침방과 다른 쪽은 장자로 연결된 청과 방이 있다. 그리고 앞뒤로 퇴를 들렀다.<sup>30)</sup> 창의궁의 경우 작은 사랑에 해당하는 영모당과 연결되고 있다. 영조의 잦은 행차로 인해 시중드는 사람들이 머물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였으므로 연결되는 부분은 마루방인 것으로 추정된다.

창의궁 함일재는 청평위궁의 정침과 규모 및 공간의 구성이 동일하다. 청평위궁 뿐만 아니라 현재 간가도가 남아 있는 다른 궁가와 비교하여도 실의 바닥구조와 기능은 차이가 있지만, 중앙에 개방적인 공간인 ‘당’을

가운데 두고 좌우로 ‘실’을 배치하는 형국은 같다. 이는 궁궐의 내전 건축의 배치와 같은 양식이다.

하지만 함일재에는 조선전기 세종부터 성종연간의 가사제한에서 설명하는 정침, 익랑, 내루 등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다. 이는 현존하는 간가도나 배치도가 19세기 상황을 반영하였기 때문이다. 이미 온돌이 보편화되면서 가사제한령에 기둥의 길이와 칸살을 규제할 정도로 명시되었던 층루건축<sup>31)</sup>은 사라지면서 그 흔적은 「인평대군방전도」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참고

한편, 부엌이 정침과 연결되지 않고, 반빗간으로 독립되어 있는 것은 조선 전기부터 내려온 주택의 특성이 보수적인 궁가 건축에 반영된 것이다. 동시에 왕실의 각종 행사를 부담하는 별궁의 기능을 위하여 풍부한 물자를 보관처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표 3. 왕실 제택의 정침부

청평위궁	창의궁
순화궁	능성구씨가(영응대군 사위)

3. 경복궁 흥복전

3-1. 경복궁 중건 과정과 흥복전 건축

(1) 경복궁 중건

고종 2년(1865)의 경복궁 중건은 대왕대비가 익종과 현종의 뜻을 이어받아 경복궁 중건을 명하면서 시작되었다.<sup>32)</sup>

『영건일기』를 보면, 이미 경복궁 각 전각 터에 대한 사전 조사한 기록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영추문 밖 창의궁에 자주 행차하였던 영조는 자연스럽게 경복

29) 『정조실록』, 정조 즉위년(1776) 5월 4일

30) 당실결합 구조에 대해서는 김버들·이종서, 「조선전기 당(堂)·실(室) 결합 건축의 가구특성 분석」건축역사연구, 2017.4 참고

31) 조선전기 층루형 침루에 대해서는 이종서, 「朝鮮前期의 住居用 層樓 建築 傳統」, 역사민속학 22호, 2006 참고

32) 『고종실록』, 고종 2년(1865) 4월 2일 첫 번째 기사

궁에 큰 관심을 보이며 기록으로 남겼다. 따라서 19세기 경복궁 중건 시 참고했던 많은 부분들은 영조 연간의 조사기록에 의존하였을 가능성이 크다.<sup>3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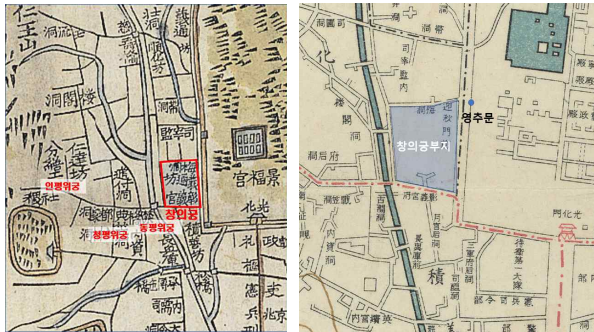


그림 6. 창의궁 위치(좌: 『수선전도』(1861) 우: 『최신경성전도』(1907),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고종 때 중건한 경복궁의 주요 전각들은 대부분 기존 전각의 자리에 그대로 지었다. 게다가 선조 대부터 영조대에 이르기까지 경복궁을 조사하고 도면을 남긴 상태였다. 따라서 대비가 계획을 천명한 지 하루 만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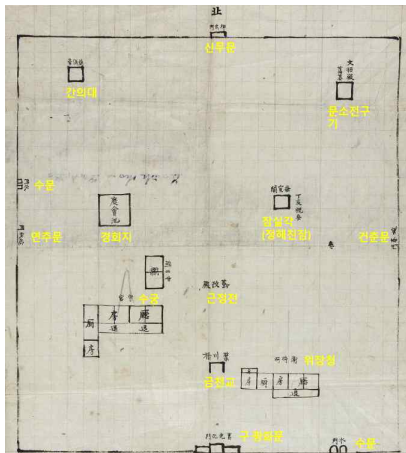


그림 7. 경복궁대궐도형(『조선왕실건축도면』, 17쪽)

뿐만 아니라, 제조, 낭청과 패장까지 정해질 수 있었다.<sup>34)</sup>

『영건일기』에 따르면, 광화문을 비롯한 궁장 사대문의 경계와 위치를 먼저 정하고 공사를 시작하였다. 궁장의 사대문은 석조와 목조가 결합한 공사인데다, 대규모 석재가 필요하였다. 도감은 행정적으로 부지런히 지방에 석재와 목재 갖추어 올리도록 독려하면서, 현장에서 터 닦기, 잡석 고르기 등을 진행하였다.

경복궁은 조종의 법궁 회복을 명분으로 시작하였으

33) 선조는 임진왜란 직후 경복궁 복원을 위한 자료를 모으고 복원 기준을 마련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후 영조대에 경복궁 전각터 조사가 실시되면서 위치가 불분명했던 주요전각들의 위치를 찾아내고 기록하였다. 고종 연간의 경복궁 중건은 영조대의 조사 기록을 바탕으로 하였을 것이다.

34) 임진왜란 이전 경복궁에 대하여 선조가 도면작업까지 끝냈지만, 공사하지 못했고, 숙종과 영조도 관심이 많아 여러 번 행차하고 과거시험을 경복궁지에서 실시하기도 하였다. 특히 영조는 문소전을 비롯하여 경복궁 주요 전각의 위치를 찾고 그 자리에 표석을 세우기도 하였다. 효명세자 역시 경복궁 복원을 기획하고 있었다.

나 결과적으로 조선 초기보다 궁역이 확대되고 전각의 수도 많이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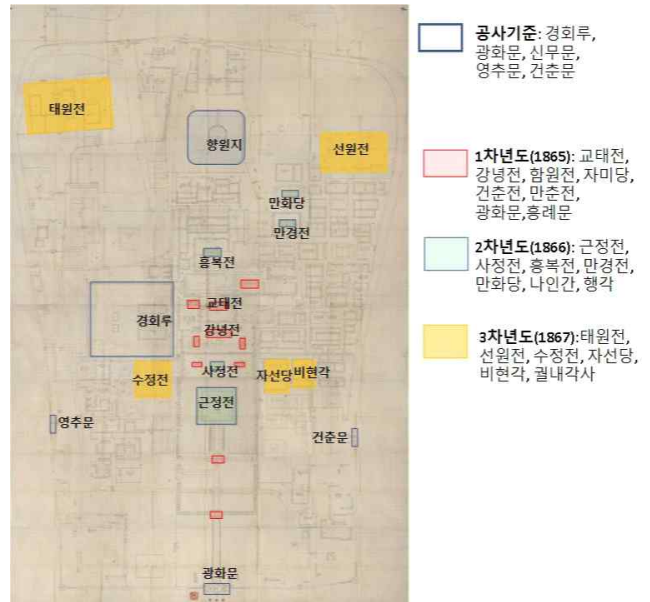


그림 8. 19세기 경복궁 재건 시 주요전각 건립순서(『북궐도형』, 규장각 소장)

(2) 흥복전 건축

흥복전은 임진왜란 이전의 경복궁에는 없던 전각으로 고종 때 경복궁을 중건하면서 새로 생겼다. 고종은 즉위하자마자 3명의 대비를 모셔야 했다. 새로 짓는 경복궁에 대왕대비전을 위한 자경전, 왕대비전을 위한 만경전, 대비전을 위해서는 흥복전을 건축하였다. 흥복전은 그동안 고종의 편전으로 알려졌었는데,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에서 고종이 외국 사신들을 접견하고, 대신들을 인견하는 등에 흥복전을 이용하였던 기록이 자주 등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건일기』에는 흥복전이 내전에 속하며 왕대비인 철인왕후의 전각으로 건립되었음을 확실하게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흥복전에 머물렀던 철인왕후를 비롯하여 왕대비, 대왕대비 등 각 대비전이 출궁하는 시각과 대비전에 들어간 후 예를 안부를 묻고 예를 표하는 기사가 있다.<sup>35)</sup> 하지만 고종10년 화재로 흥복전을 제외한 모든 전각이 전소되면서 고종과 삼전이 창덕궁과 창경궁으로 이어한 후, 고종만 환어하였다. 이후 흥복전은 건청궁 영역과 연계되어 편전으로 등장한다.

흥복전 공사 과정은 『영건일기』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고종 3년(1866) 3월 24일 흥복전 기단 축조를 시작으로 3개월만인 6월 24일에 기둥을 세우고 이듬해 1월 17일에는 300여 칸에 달하는 나인간의 정초와 입주

35) 『영건일기』, 1868년(고종 5) 7월 2일

가 이루어졌으니 9개월가량의 짧은 기간 동안 흥복전 권역은 어느 정도 건축을 마쳤다고 보인다. 고종 4년(1867) 8월 18일에는 흥복전 당호와 각문 이름이 결정되었는데 서내장의 유동문을 제외한 고주대문 수인문-중일각문 개이문-서행각 중문 수다문으로 이어지는 주출입 동선에 있는 문이 확정되고, 북행각과 동장, 창차비문의 이름이 나와서 이때쯤이면 주변 전각이 거의 마무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sup>36)</sup> 고종 5년(1868) 윤4월 8일에 도배 공사, 6월 12일에 추가로 지은 전당과 행각의 이름을 정하는 것으로 흥복전 공사가 마무리되었다.

흥복전은 교태전 아미산 뒤편에 위치하기 때문에 흥복전의 정면에서는 아미산의 담장이 보인다. 넓은 마당만 아니라면 일반 제택의 뒷마당에서 보이는 경관이다. 따라서 다른 전각처럼 건물의 정면관을 보며 출입할 수 없다. 이러한 입지로 인해 흥복전은 여러 번의 화재로부터 유일하게 피해가 없는 전각이었다.

흥복전은 동·서·북쪽에 여러 겹의 행각을 둘렀다. 서쪽에는 서행각과 서중행각, 외행각으로 3겹의 행각을 두었고 북쪽으로는 북행각, 북중행각, 삼행각, 사행각, 후행각으로 5겹의 행각을 두고 그 뒤로 담장을 한 겹 더 둘렀다. 따라서 흥복전으로 출입하기 위하여 수인문-개이문-수다문-유동문을 거치고 전각 주변으로 상당히 많은 행각과 출입하는 수많은 문을 두어 폐쇄적인 공간구조를 하였다.



그림 9. 『북궐도형』의 흥복전과 현재 흥복전 주변 경관

또한 발굴조사 내용과 규장각 소장 북궐도형을 보면, 적경문과 선의문은 전돌을 깔 바닥으로 왕실 구성원은 이 문을 통과한 후 북도각을 통해 이동했을 것이다.<sup>37)</sup> 시오문 옆에는 창차비가 있어 흥복전을 들어가

기 위한 신료들은 이곳에서 대기하였다가 시오문을 통과하여 흥복전으로 들어갔을 것이다.

『고종실록』과 『영건일기』에 기록된 경복궁 중건 당시의 전각과 문의 명칭을 『북궐도형』과 비교해보면 대부분은 일치하지만 일신문과 풍덕문은 그렇지 않다. 일신문은 『북궐도형』에 표기되지 않았고 풍덕문은 승광문으로 이름이 바뀌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후행각이 『북궐도형』에는 “지금 없음”으로 표기되어 후행각의 기둥 간격 정도는 그려져 있으나 방과 마루의 구성이나 문 이름 등은 알 수 없다. 이 행각들은 궁인들이 머무는 처소와 음식을 만드는 소주방 등이 있다. 이렇게 남쪽을 담으로 마무리하고 동, 서, 북쪽에 행각을 겹으로 두른 구조는 흥복전이 자경전, 만경당, 만화당 등의 전각과 다른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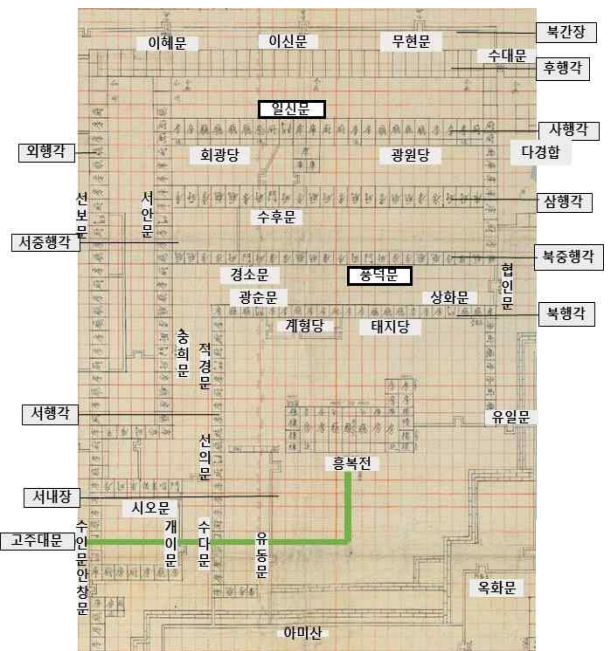


그림 10. 흥복전과 흥복전 권역

### 3-2. 경복궁 흥복전의 건축 특성

#### (1) 함일재와 흥복전의 평면 비교

흥복전의 전신인 창의궁 함일재는 ㄱ자형 평면으로 가운데에 6칸의 지밀대청을 두고 오른쪽에는 4칸 온돌방과 왼쪽에는 4칸의 대청을 두었다. 왼쪽 대청에서 아래로 꺾어진 위치에는 다시 4칸 온돌방을 두었다.

제택건축은 사례들로 볼 때, 방(4칸)-대청(6칸)-방(4칸)으로 궁궐 내전의 제도와 유사한 평면 형태를 보이고 있다. 제택건축 정침의 규모는 효종의 둘째 공주인 숙안공주의 제택은 27칸이었고, 셋째 공주인 숙명공주

36) 『고종실록』4권, 고종 4년(1867) 8월 12일 무술 3번째 기사 및 『영건일기』고종 4년 8월 1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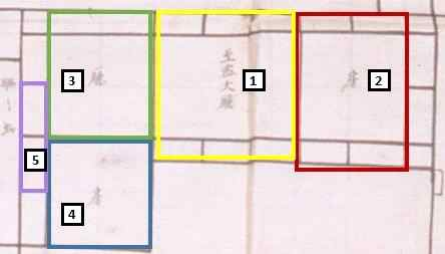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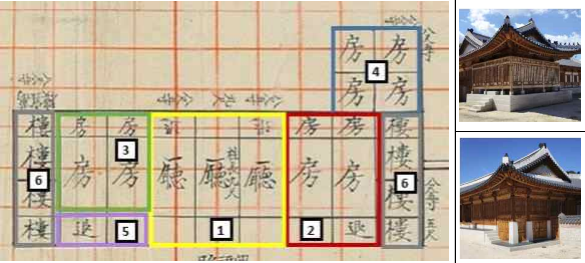
37) 국립문화재연구소, 『흥복전 건축유적 자료집』, 2014, 77쪽



제택의 정침은 33칸으로 40칸의 흥복전보다는 작지만 상당히 큰 규모의 건물이다.<sup>38)</sup> 함일재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6칸 대청과 4칸 침방을 둔 제택건축 정침의 평면 형태를 하고 있다.

경복궁 흥복전은 총 40칸 규모의 건물로 ㄴ자형 평면이다. 정면은 9칸, 왼쪽 측면은 4칸, 오른쪽 측면은 7칸이다. 가운데 6칸 대청이 있고 좌우로 4칸씩 온돌방이 위치한다. 그 위·아래로 뒷간을 두고 오른쪽 위로 꺾어진 위치에 4칸 온돌방을 두었다. 동·서쪽에 누마루를 두었는데 서쪽의 누마루를 만의루(萬宜樓)라고 한다. 가운데 대청을 두고 양쪽에 동온돌, 서온돌을 배치한 전형적인 궁궐의 침전 평면 형태에서 4칸짜리 온돌방을 더 붙인 형태이다.

표 4. 창의궁 함일재와 경복궁 흥복전 이건 추정

이건 추정 내용	
함일재	
흥복전	
①	6칸대청과 전후 뒷간 : 이건
②	4칸 온돌과 전후 뒷간 : 이건
③	4칸과 후면 뒷간 : 구조물을 이건하고 마루에서 방으로 바꿈
④	4칸 온돌: 위치를 바꾸어 이건
⑤	2칸 뒷간 : 위치를 바꾸어 이건
⑥	누마루 : 신설

함일재와 평면을 비교해 보면 둘 다 9칸 정면에다 가운데에 대청을 두고 뒷간을 두른 것은 유사하다. 그러나 평면에서 ㄴ자로 꺾인 위치가 다르며 6칸 대청 왼쪽에 함일재는 대청을 두었고 흥복전은 온돌방을 두어 실의 구성이 다르다. 이것은 궁궐건축과 제택건축의 차이로 보이는데 궁궐건축의 침전 평면은 가운데 대청을 두고 양쪽에 대칭적으로 방을 배치하는데 비하여 제택건축에서는 6칸 대청과 4칸 침방을 두는 형태로

대칭성은 약하다.

함일재를 흥복전으로 이건한 내용을 실의 기능과 공간의 크기로 추정하면 <표 4>와 같다. 즉 흥복전은 양쪽 누마루를 제외하고는 함일재를 이건한 부재를 거의 활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간적으로는 제택건축의 비대칭적 형태에서 궁궐 내전건축으로서의 대칭적인 형태로 바뀌었다.

따라서 경복궁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창의궁이 경복궁 중건을 위해 전각을 이건할 경우 운송 거리가 짧다는 지리적 이점도 있고, 정침인 함일재가 궁궐의 내전으로 이건하기에 적합한 평면 형태를 하였으며 관리도 꾸준히 이루어졌기에 이건이 결정되었을 것이다.

(2) 흥복전과 다른 대비전각의 비교

영건일기에 따르면 자경전은 경복궁 중건공사가 시작 이후 1년이 지난, 1866년 3월 신축되었다. 이 시기는 신정왕후가 수렴청정을 거둔지 한 달이 조금 못된 시점이었다. 따라서 대왕대비인 신정왕후를 위한 자경전을 특별히 신경 써서 건축했을 것이다. 당시 흥복전은 기초공사를 마치고 창의궁 함일재의 기단부재를 이용하여 기단을 축조하던 때이다. 즉 자경전이 건축계획이 세워졌을 무렵, 흥복전은 이미 기단공사 중이었으므로, 흥복전은 대비의 전각 중에서는 이른 시기에 건축을 시작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흥복전의 위치가 광화문부터 교태전 방향으로 나아가는 주축 선상에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궁궐지』와 『북궐도형』은 경복궁 전각의 규모와 건축 형식이 기록되어 있다. 특히 평면형식으로 묘사된 『북궐도형』에는 각 실의 기능과 글자의 방향으로 건물의 전후와 출입을 구분할 수 있다.

흥복전과 다른 대비전각 모두 넓은 앞마당과 뒷마당을 갖고 있다. 이는 궁궐 밖 제택에서도 나타나는 특징으로 일반적인 미음자집처럼 폐쇄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각각의 대비전에서 필요한 사회적 활동을 염두한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각 전각의 고유한 영역성을 확보하려는 의도이다.<sup>39)</sup>

흥복전은 여러 번의 화재에서 유일하게 남은 내전건축이었다. 거리상 상대적으로 건청궁과도 가까웠기 때문에 고종이 친정을 선포한 이후 건청궁과 함께 편전으로 임의롭게 사용할 수 있었다.

38) 『현종실록』, 현종 10년 9월 19일 두 번째 기사

39) 송명희·김봉렬, 「운현궁 배치 계획의 모듈체계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학회 추계학술대회, 2012.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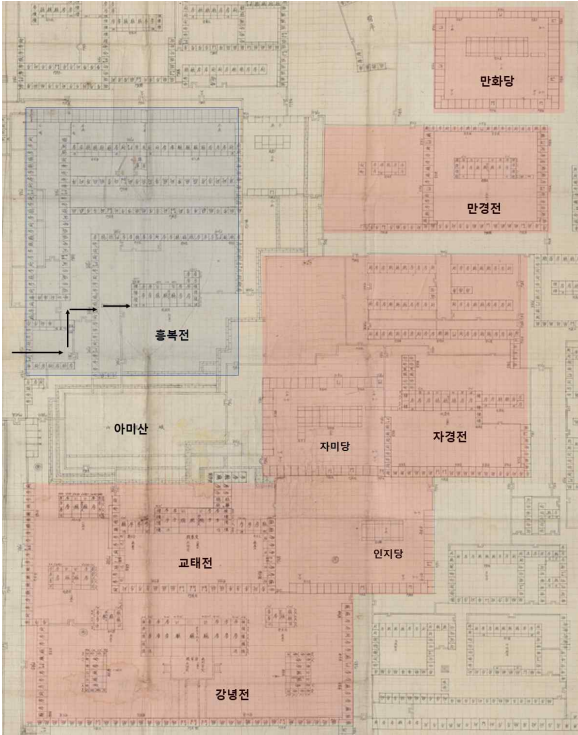


그림 11. 경복궁의 내전 배치(북궐도형: 규장각 소장)

홍복전을 비롯하여 내전의 건축은 6칸 대청을 가운데 두고 동서에 운동방을 대청으로 배치한 후, 퇴가 방향으로 돌아가는 구조이다. 이러한 평면구성은 경복궁 홍복전 뿐만 아니라 교태전, 왕대비의 거처인 만경전, 경빈 김씨의 거처인 만화당도 똑같이 나타난다.

홍복전은 내루가 있는 침루형 침전이지만, 누각은 정면에서 보이지 않는다. 정면에서 보면, 반듯한 방형 건축으로 모여, 정면성이 부각된다. 정면 중앙의 당(堂)과 좌우 실(室)의 배치라는 동일한 흐름 속에서 방과 연결된 내루는 모두 전각의 뒤로 배치되어 있다. 이러한 시각적 효과는 고종이 훗날 소편전<sup>40)</sup>처럼 사용할 수 있는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실제로 건축공사가 있기 이전에 각 건물의 단청계획이 선행되었는데 홍복전 단청은 사정전과 같이 육화로 계획되어 있었다.<sup>41)</sup>



『궁궐지』에 기록된 대비전각들의 부재 크기를 비교해보면 홍복전의 주장과 칸살이가 다른 대비 전각보다

40) 궁궐의 편전 개념과 운영변화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였다. 장영기, 『조선시대 궁궐 운영 연구』, 도서출판 역사문화, 2014 및 이종서, 「조선시대 '편전(便殿)'의 의미와 구성의 변화」, 건축역사, 30권 6호, 2021.12

41) 『영건일기』, 고종 2년 11월 2일

짧다. 주장이 짧고 간살이 계획이 다르다. 대왕대비전인 자경전은 도리칸이 모두 9척으로 동일하여 협칸이 없고 왕대비전인 만경전은 동일한 9척의 간살을 계획하였으나 좌우 1칸씩 5.5척의 협간을 두었다. 홍복전은 어칸은 9칸으로 동일하나 정면의 가운데 1칸이며, 나머지 좌우 협간은 4칸이 모두 8.5척이다. 즉 정면에서 보면 자경전과 홍복전의 칸살이는 눈이 뜨이지 않는다. 보칸의 경우는 홍복전의 주칸은 8.5칸이고 다른 대비전각은 9칸으로 홍복전이 작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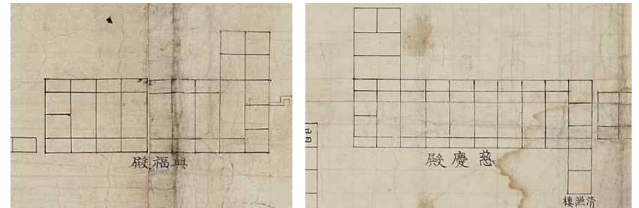


그림 13. 홍복전과 자경전(『경복궁배치도』, 고려대박물관 소장)

홍복전의 포작은 초익공인데 이는 이익공인 자경전보다 위계가 낮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머무는 사람의 격에 따라 기둥 위 포작과 기둥의 길이, 자간 등을 고려했을 것이다. 다만, 『궁궐지』와 북궐도형의 기록은 고종 5년 재건 당시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sup>42)</sup>

표 5. 홍복전과 대비전각 비교(궁궐지 참고)

전각명	간수	포작 단청	주장	칸살이			
				도리칸		보칸	
				주칸	퇴칸	주칸	퇴칸
자경전 (대왕대비)	44칸	이익공 육화	10척	9척 (10칸)		9척 (2칸)	5척 (전후)
만경전 (왕대비)	36칸	무익공 백수백복	11척	9척 (7칸)	5.5척 (동서)	9척 (2칸)	5.5척 (전후)
홍복전 (대비)	40칸	초익공 육화	9척	어칸 9척 (1칸)	협간 8.5척 (8칸·좌우)	8.5척	5척 (전후)

대비전의 위계로 보면, 대왕대비-왕대비-대비의 순이지만, 왕대비 전으로 계획된 만경전은 좌우 행각, 복도각 및 담장 등으로 연결된 다른 전각과 달리 우측의 복도각을 제외하면 다른 건축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

내전으로서는 자경전이 대비전각 중에서 가장 우위를 차지하지만, 만경전과 홍복전 사이의 위계는 구분하

42) 고종 10년 및 고종 13년 화재 이후 경복궁 재건때마다 변화가 있었다. 고종 12년 3월 29일 승정원일기에는 고종이 경복궁과 창덕궁의 내전 차이를 언급하면서 제도를 고치려 하였다. 첫째, 경복궁의 내전은 창덕궁과 달리 주밀하지 못하고 안팎과 정면·후면의 구분이 없다. 둘째, 경복궁 전각의 앞뒤 간격이 너무 넓으니 근접시켜야 하므로 자경전과 교태전을 터를 옮겨 새로 짓겠다. 셋째, 간살을 이전보다 넓혀야 한다. 그러나 대신들의 반대로 전각 사이가 연결되도록 행각만 변형하고, 이전의 터 위에서 간살이만 키우는 것으로 협의하였다. 이는 고종연간 『무진진찬의궤』에 표현된 강녕전 흥경각의 칸수 변화와 영건일기에는 육화였던 자경전의 단청이 현재는 쌍회인 점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기 모호하다. 이는 자경전이 철저히 대왕대비의 침전으로서 계획되었는데 반해, 흥복전과 만경전은 내전의 침전뿐만 아니라, 소편전의 역할도 겸하였기 때문이다.

흥복전처럼 만경전도 고종이 신하를 인견하거나 진찬의 예를 행하는 장소로 활용되었다.<sup>43)</sup> 다만 그 횡수나 사용 빈도는 흥복전이 더 높다.

만경전은 자경전의 부속전각의 성격도 있었다.<sup>44)</sup> 북궐도형과 왕실건축 도면상에서 보면, 만경전은 만화당과 함께 자경전에 예측된 공간으로 보인다. 따라서 만경전은 흥복전 및 자경전과 달리 독립된 나인처소나 부속전각이 별도의 권역을 갖추지 않고 있으며, 퇴칸의 크기도 9척의 주칸과 눈에 띄는 차이를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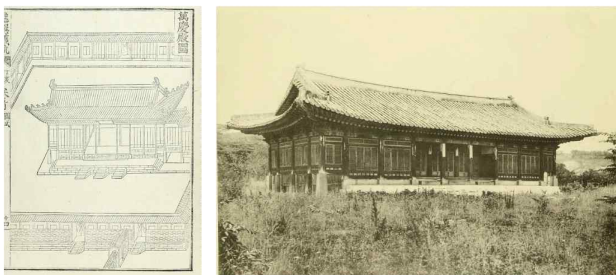


그림 14. 만경전(『정해진찬의례』(1887), 『조선고적도보』(1917 이전))

자경전, 만경전 및 흥복전은 대비의 거처라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주전각의 접근성에는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주전각의 사방은 담이나 행각을 둘러져 있으며, 남쪽의 문을 통하여 전각을 바라보며 진입한다. 그러나 흥복전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교태전과의 사이에 아미산이 넓게 퍼져 있어서 흥복전의 정면에는 문을 둘 수 없다. 즉 동서 측면이나 북쪽의 행각을 통해 흥복전으로 들어갈 수 있다.

표 6. 대비전 내 주전각의 접근성

자경전	만경전	흥복전

흥복전은 기존 건축자재를 재활용한 거의 1:1 이건

43) 조대비의 팔순 잔치가 1887년 만경전에서 있었다.(『丁亥進饌儀軌』, 장서각K2-2876/남호현, 『조선 궁궐의 주거공간』, 민속원, 110쪽)

44) 남호현, 『앞의 책』, 109쪽/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 『조선왕실 건축도면』 『통화당도』는 협광문 일대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협광문을 지나면, 바로 나인처소와 대왕대비전 창자비가 있다. 따라서 대왕대비전의 영역은 자경전을 중심으로 만경전과 만화당을 비롯하여 협광문까지로 볼 수 있다.

이었기 때문에 신속한 다른 대비 전각들보다 빠르게 구조를 완성할 수 있었다. 다만, 흥복전이 거느리는 나인간과 부속전각의 규모가 컸기 때문에 흥복전 전체 권역의 마무리 시점은 다른 대비전과 같았다. 중간에 신미양요로 공사가 중단되는 일도 있었지만, 전각 보수와 공사의 마무리에 해당하는 도배는 대비전 모두 같은 시기에 시작하고 마무리되었기 때문이다.<sup>45)</sup>

대비전각과 비교하면 흥복전은 자경전보다 낮은 위계로 계획되면서 소편전의 역할로서는 만경전보다 높은 위계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 4. 결 론

본 연구는 273년 만에 이루어진 19세기 경복궁 중건 공사 중 흥복전에 관한 연구이다. 7천여 칸이 넘는 궁궐 공사가 빠른 시일 내에 가능했던 이유는 기존 건축을 재활용하였기 때문이다. 흥복전의 전신은 영조의 잠저인 창의궁 함일재이며, 창의궁은 효종이 출가한 공주를 위해 지어준 인평위궁이었다.

함일재를 흥복전으로의 이건하는 과정을 평면도를 통해 추정해보면 흥복전은 양쪽 누마루를 제외하고는 함일재를 이건한 부재를 거의 활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간적으로는 제택건축의 비대칭적 형태에서 궁궐 내전건축으로서의 대칭적인 형태로 바뀌었다. 그리하여 흥복전은 내루가 있는 침루형 침전이지만 정면성이 부각되어 고종이 훗날 소편전처럼 사용할 수 있는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건 작업의 특성상 빠른 건축이 가능하여 흥복전은 경복궁의 대비 전각 중에서 먼저 건축되었으며, 제택건축의 부재를 활용했기 때문에 기둥 길이가 다른 대비 전각들보다 짧다.

결론적으로, 경복궁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창의궁이 경복궁 중건을 위해 전각을 이건할 경우 운송 거리가 짧다는 지리적 이점도 있고, 정침인 함일재가 궁궐의 내전으로 이건하기에 적합한 평면 형태를 하였으며, 제택건축으로 큰 간살이를 하였기에 궁궐 내전으로 건축이 결정되었을 것이다.

흥복전은 고종 10년과 고종 13년 두 번의 내전 화재에도 소실되지 않고 남은 유일한 내전건축임도 확인하였다. 따라서 경복궁 흥복전의 탐구과정은 19세기 경복

45) 대비전 권역 전체의 전각 보수는 고종 4년 10월, 도배는 고종 5년 4월에 같이 시작하였다.(『영건일기』, 고종 4년 10월 11일 및 고종 5년 4월 8일)

궁 중건뿐만 아니라, 17세기 도성 제택건축의 고찰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조선왕조실록』, (history.go.kr)
2. 『승정원일기』, 한국고전종합DB (itkc.or.kr)
3. 『동주집(東州集)』, 한국고전종합DB (itkc.or.kr)
4. 『계곡선생집(谿谷集)』, 한국고전종합DB (itkc.or.kr)
5. 『인평대군 방전도(麟坪大君坊全圖)』, 규장각 원문검색 서비스 (snu.ac.kr)
6. 『북궐도형』, 규장각 원문검색서비스 (snu.ac.kr)
7. 이운선 저, 『국역 공사기고 1』, 서울역사편찬원, 2017
8. 서울역사편찬원, 『국역 경복궁 영건일기 1~2』, 서울역사편찬원, 2019
10. 엄경수 저, 『국역 부재일기 1』, 서울역사편찬원, 2020
11. 국립고궁박물관, 『조선왕실의 어진과 진진』, 2015
12. 국립문화재연구소, 『조선왕실 건축도면』, 2013
13. 김버들·조정식, 「고종대 경복궁 중건 시 영건일기에 나타난 목재 조달 고찰」, 건축역사연구, 29권 6호, 2020.12
14. 김버들·이종서, 「조선전기 당(堂)·실(室) 결합 건축의 가구특성 분석」, 건축역사연구 26권 2호, 2017.4
15. 김용숙, 『조선조 궁중풍속 연구』, 일지사, 2004
16. 국역 『공사건문록』,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7. 남호현, 『조선 궁궐의 주거 공간』, 민속원, 2016
18. 박희용·이현진, 「영조대 懿昭世孫의 禮葬을 통해 본 창경궁 내외의 동선과 宮家의 공간구조」, 규장각 45권, 2014
19. 송인호·조은주, 「조선 별궁 於義宮(龍興宮)의 都市位相과 英祖의 親迎」,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27권 5호, 2011
20. 송명희·김봉렬, 「운현궁 배치 계획의 모듈체계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학회 추계학술대회, 2012.11
21. 신영훈, 『궁궐』, 도서출판 한옥문화, 2005
22. 안장리, 「영조(英祖) 궁궐 인식의 특징」, 한국학, 29권 3호, 2006
23. 이순자, 『조선의 숨겨진 왕가이야기』, 평단, 2013
24. 이종서, 「조선시대 남별궁의 평면구조와 변화」, 건축역사, 제29권 1호, 2020.2
25. 이종서, 「조선시대 ‘편전(便殿)’의 의미와 구성의 변화」, 건축역사 제30권 6호, 2021.12
26. 이혜원, 「景福宮 중건 이후 殿閣構成의 변화 : 「경복궁 배치도」와 「北闕圖形」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박사논문 2009

27. 장영기, 『조선시대 궁궐 운영 연구』, 도서출판 역사문화, 2014
28. 정정남, 「효종대 仁慶宮內 宮家の 건립과 그 이후 宮域의 변화」, 서울학연구 39, 2010.5
29. 주남철, 『궁궐』일지사, 2003
30. 주남철, 「조선시대 청평위궁(淸平尉宮)의 기초적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27권 7호 2011.7
31. 홍석주, 「17세기 인경궁 건축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발전학회 논문집, 2010
32. 홍순민, 『홍순민의 한양읽기 궁궐 하』, 놀와, 2017

접수(2022. 10. 18)

수정(2022. 12. 1)

게재확정(2022. 12. 8)